

도, 카자흐스탄 경제포럼 성과 도출

카자흐스탄 에어바프레쉬, 전북 소재 기업과 5만 달러 수출 계약

전북도에 카자흐스탄의 바람이 훈풍이 되어 불어오고 있다. 지난 5일 진행된 B2B 상담회에서 투

자 및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도내 기업과 카자흐스탄 바이어간 결과를 냈다.

전북도와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B2B 상담회에 카자흐스탄의 8개 업체와 도내 30여개 업체가 참여해 전북-카자흐스탄 기업인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중앙아시아 수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했다.

카자흐스탄 식품기업 (유)신라인과 (주)에버스톤(임실 소재 제조업체)이 지난 6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투자 및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유)신라인의 주력상품을 (주)에버스톤의 전북공장서 위탁생산 할 것을 OEM방식으로 협약.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전북공장에 설비투자, 기술교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유)신라인은 (주)노아팻바이오

(전주 소재, 반려견 치료용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카자흐스탄의 저렴한 원료가격을 제시. (주)노아팻바이오의 제조방법을 토대로 향후 카자흐스탄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호주 등에 역수출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온라인 플랫폼 식품유통기업인 에어바프레쉬는 익산 소재 기업인 (주)은성푸드의 소면, 군산 소재 (주)서주제과의 젤리, 부안 소재 해신영어조합법인의 어포튀카, 해태제과의 과자를 대상으로 5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어바프레쉬의 경우 카자흐스탄에 숙취해소 제품이 부재한 실정을 토대로 B2B 수출상담회에서 익산소재 기업인 (주)239바이오의 체합분을 전달받아 숙취해소환과 당노치료제 제품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카자흐스탄 식품기업 (유)신라인과 (주)에버스톤(임실 소재 제조업체)이 지난 6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투자 및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다양한 기관 데이터 연계

농협중앙회, 농업 All In One 빅데이터 플랫폼(N-Hub) 오픈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농협 중앙회에서 농업 All In One 빅데이터 플랫폼, N-Hub(NH Bigdata Hub)를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N-Hub는 농협 농진청, 농정원, 축평원 등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농산물 종합정보 △축산물 종합정보 △귀농귀촌메이트 △하노마트 매출 돌보기 등 8개 서비스와 농산물 가격 예측 및 작물추천, 스마트팜 생산량 시뮬레이션 분석모델을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정보는 NH오늘농사를 통해 농업인에게도 서비스 할 예정이다.

일례로, 귀농귀촌 메이트에서는 귀농 예정지의 정주여건 토양과 기온, 보조금과 지원정책, 부동산

농업 All in One 빅데이터 플랫폼 N-Hub

실거래가, 주 재배 작물, 추천 작물 등 예비 농업인이 귀농귀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농업 All In One 빅데이터 플랫폼 N-Hub를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 되는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NH오늘농사와 연계를 통해 농업데이터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신용보증재단, 제3회 전북 CEO지식향연 개최

정세균 前국무총리 초청,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 강연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중관, 이하 전북신보)은 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강연자로 초청해 '제3회 전북 CEO지식향연'을 개최했다.

전북신보 한중관 이사장은 "이번 CEO지식향연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여, 새로운 전북을 이룩하려는 뜻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그 테마로 삼고자 했다. 이번 강연이 전북 기업의 미래 설계를 위한 힌트와 통찰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 시작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 건립,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전라북도 경쟁력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은 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강연자로 초청해 '제3회 전북 CEO지식향연'을 개최했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민들의 열의와 간절함이 전라북도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정 전 총리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미

중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에 따른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을 평가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제시했다.

/김옥기 기자

식품연구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설명회 개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영희, 이하 식품연)은 7일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국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이하 인니 할랄인증청)과 우리나라 할랄인증기관간 상호인정협약(MRA) 체결에 따라 국내 농식품기업은 우리나라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하여 보다 쉽게 인도네시아로 수



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농축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한국식품연구원 서

동원 식품산업연구본부장, 인도네시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나나 수트리노 인니 할랄인증청 팀장은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할랄인증 의무화 시스템 및 규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내 농식품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독려했다.

/김옥기 기자

도, 5개년 농업기계산업 육성 계획 심의·의결

전북도가 12월 7일 전북도 농업기계산업 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2028년 5개년 농업기계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전라북도농업기계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기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

로 산·학·연·관 14명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으로 2023년 11월까지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이상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이, 부위원장으로는 현대농기계 대표 박육란 위원이 선출됐다.

/김재훈 기자

유모차·휠체어도 편하게 찾는다

농진청, 농촌관광마을 2곳 사회적 약자 배려 디자인 적용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촌의 체험, 서비스 숙박 시설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전북 부안과 충남 홍성의 2개 마을에 적용했다.

연구진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 농촌 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촌관광마을 활성화 연구 결과를 실증하고자 이번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과제 적합성과 농가의 역할 이해, 협조성 등을 평가해 전북 부안의 청호수마을과 충남 홍성의 오누이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마을운영자들과 면담해 시설개선 필요성을 듣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마을 내 시설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렇게 정리된 개선 수요를 바탕으로 학계, 현장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

을 종합, 개선 대상 시설을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별한 개조나 특수 설계 없이 경사지, 출입문, 주차장 등 마을 시설 디자인을 개선해 다양한 사람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농촌 마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성 오누이마을 운영자 김경숙 사무장은 "휠체어를 타고 오신 방문객이 주차장에서 체험시설로 가는 길, 체험장 출입문 앞에 있는 큰 턱 때문에 불편해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돼 마음이 놓인다"라고 말했다. 방문객들도 마을 이용이 편리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지원과 홍석영 과장은 "농촌관광마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적용해 '누구나 찾는 농촌'을 만들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